

# 스토리텔링을 통한 감성교육 프로그램 구안 방향 탐구: 문헌연구를 중심으로

엄명자 · 강현석<sup>†</sup>  
(경북 이서초등학교 · <sup>†</sup> 경북대학교)

## In Search of the Emotional Education Program Design through Storytelling: Literature Review

Myeongl-Ja EOM · Hyeon-Suk KANG<sup>†</sup>  
(Iseo Elementary School · <sup>†</sup>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d the direction of program development in emotional education through storytelling without separating intellectual education in current schooling. As the basic research on program development for elementary school students' emotional intelligence, this study examined how storytelling affects program development in emotional education, and the direction of program contents and structures using storytelling.

Firstly, current storytelling and existing programs used for emotional education were analyzed and the direction of program development in emotional education was investigated. Secondly, the structures and procedures of programs for emotional education through storytelling were examined. Finally, stressed contents and items by each factor consisting of emotional intelligence related to the curriculum, and more discussions to consider were inquired.

For systematic emotional education, there must be efforts made on developing contents of each factor comprising emotional intelligence; and teaching must be done through the interrelatedness among home, society and school. Furthermore, the construction of social system across the country is required.

In conclusion, this study suggest the emotional education needs new curricula based on narrative, because it is dependent on personal emotions and situations.

*Key words : Storytelling, Emotional Intelligence, Emotional Education, Narrative*

### I.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교육과학기술부에서 2012년 7월 고시한 인성 교육 실현을 위한 초·중등교육과정 개정의 배경에는 학생들의 ‘바른 인성 함양을 통해 학교 폭

력을 미연에 방지, 대응할 수 있는 교육 내용 개선의 필요성’ 이 내재되어 있다. 그 동안 학생을 자살에 이르게 하는 학교 폭력은 이제 범국가적인 문제가 되었다. 이에 지식 중심에서 학생 스스로 체험하고 실천할 수 있는 내용으로 인성교육 전환이 필요하였다. 교과 교육과정의 주요 개

<sup>†</sup> Corresponding author : 010-3368-1672, hskang84@knu.ac.kr

정 내용은 프로젝트형 인성교육이 가능하도록 국어, 도덕, 사회 교과와 ‘인성요소’가 강화되었다. 교과와 핵심내용은 지식중심에서 사례·실천 중심으로 개편되고, 교과별 ‘프로젝트형 인성교육’ 교수·학습방법 및 평가 방법이 제시되고 있다. 이는 그동안 주지주의 교육의 부작용을 반증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사실 학교교육 현장을 들여다보면 산업정보화 시대에서 오는 심각한 부작용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학생들은 예전에 비해 주의가 산만하고, 싸움이 잦고, 집단 따돌림과 폭행이 일상적으로 일어나며 자기 통제력이 부족하고, 과제 집착력과 집중력, 타인에 대한 배려 등이 부족하다. 이는 우리의 아이들이 자신의 감정에 대한 자각이 부족하며, 늘 함께 지내는 또래들이 어떤 욕구를 가지고 있는지 어떤 느낌을 가지는지를 공감하는 능력이 덜 개방되었음을 말해 준다. 아이들뿐만 아니라 교사와 부모들조차 그 점에서 비슷한 어려움을 경험하기도 한다. 청소년기에 정서적 역량을 계발시키지 못한 어른들은 단지 그들의 부모가 했던 대로 행동하거나, 별 의식 없이 습관적으로 말하고 행동하면서 혼란스러움과 좌절감을 느낀다(노성향, 2001; Schilling, 1996).

인성교육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정서교육은 지금까지 교육현장에서 그다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이는 지나치게 인지적인 측면을 중시하는 사회적 분위기나 정서 자체가 뚜렷하게 눈에 보이는 객관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점에 기인한다. 그러나 급변하는 사회에서 인간이 갖추어야 할 요인 가운데 정서지능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점차 강조되고 있다. Gardner(1983)는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가르쳐야 할 가장 중요한 항목은 바로 개인지능이라고 하였으며, Payner(1986)도 학교에서 정서반응을 교육함으로써 정서와 지능이 통합되고, 정부가 개인의 정서 반응에 관심을 보이는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고 하였다(정옥분 외, 2006).

이에 현재 분위기는 정서교육이나 감성교육을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하는 방법에 대하여 많은 논의들이 전개되고 있다. 그 중에서 우리의 주목을 끄는 것은 학생들이 겪는 여러 문제들의 원인은 자신의 경험과 삶에 대하여 이야기 할 수 있는 능력이 결여되어 있다는 것이다.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의 삶의 문제를 스스로 이야기하고 타인과 소통하는 역량이 결여되어 있어서 자신의 정체성을 형성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이야기를 통한 정체성의 형성이 문제해결의 관건이라는 것이다(Bruner, 2002; 강현석 외, 2010).

정서교육이나 감성교육도 이제는 특정 기법이나 이벤트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이야기하는 문제에서 출발해야 하며, 학교 교육과정도 이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스토리텔링을 활용하여 감성교육을 보다 내실 있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말하기나 이야기하기는 과거 전통적인 주지교육에서 강조된 논리적인 글쓰기나 분석하기, 증명하기 같은 것과 대조를 이룬다. 이야기하는 능력은 과거 학교에서 의도적으로 강조되지 못한 측면이 있다. 영 교육과정(null curriculum)에 해당되는 스토리텔링을 적극적으로 감성교육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

과거 우리는 주지교육은 학교에서 감성교육은 가정에서 분담한다는 무언의 관행이 있어왔다. 그러나 이제는 가정과 마찬가지로 학교에서도 교육과정 운영 속에서 감성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예를 들면 재미있는 이야기가 수록된 읽기 학습에서 아동은 등장인물들이 느끼는 감정에 대해 배우기 시작한다. 등장인물들은 행복해하거나, 공포감이나 질투심을 보이게 되며, 그러한 감정들에 대처해 나가는 방법에 대해서도 학습하게 된다. 이러한 학습은 교육과정을 통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며, 이야기가 보다 복잡해질수록 복잡한 정서적 학습도 가능해진다. 등장인물의 감정을 이해하고 이에 공감하는 행동을 하는 것은 정서학습의 중요한 수단이 된다. 이처럼 스토리텔링은 정서학습이 이루어지는 대표적인 교육 방

법으로 인식되고 있다(한명숙, 2007).

이상의 배경과 취지에 입각하여 본 연구는 국어과 교육과정 속에서 스토리텔링을 활용한 감성교육 프로그램 구안 방향을 문헌연구 결과를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한다. 즉, 주지교육과 감성교육을 따로 분리시키지 않고 감성지능의 학습과정을 교육프로그램으로 구안하고자 할 때 고려해야 할 문제를 선행연구 결과에 기초하여 개괄적으로 살펴보려고 한다.

## 2. 연구 문제

본 연구의 목적은 스토리텔링을 통한 감성교육 프로그램 구안 방향을 탐구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프로그램 구안의 기저 지식으로서 스토리텔링과 감성지능의 특징은 무엇인가?

둘째, 스토리텔링을 통한 감성교육 프로그램 구안에서 고려해야 할 요인들은 무엇인가?

셋째, 프로그램 구안의 방향은 어떻게 설정되어야 하는가?

## 3. 선행 연구 검토

스토리텔링을 활용한 감성교육 프로그램 구안을 위해 두 가지 차원, 즉 스토리텔링과 감성(정서)교육의 선행연구를 검토하였다.

먼저 스토리텔링을 활용한 프로그램은 주로 국어과(문학교육) 측면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한금남 2005; 강용운, 2011; 박진호, 2011). 아울러 도덕과를 중심으로 한 인성교육 및 사회, 미술, 음악, 마케팅, 경영 등 다양한 분야에 스토리텔링이 적용되고 있다(김해연, 2007; 김경향, 2009; 박준형, 2010; 강한균 외, 2011; 김정아 외, 2011). 이와 같이 스토리텔링과 관련된 선행연구는 초등학교 학생의 발달과 정서에 맞게 스토리텔링을 적용하여 효과적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음을 밝히고 있다.

최근에는 감성교육과 관련된 연구가 활발히 진

행되고 있으며, 감성지능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보다 엄격하고 명확하게 감성지능의 개념이 규정되고 있으며, 새로운 모형이 꾸준히 제시되고 있다.

감성지능과 관련된 최근의 연구들을 살펴보면 크게 세 가지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첫 번째는 학습자의 감성능력과 관련된 변인들을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노력이다(우수경, 2002; 전호운, 2010; 박성미 외, 2011). 두 번째 방향은 감성 지능 개념과 구성 요소 속에서 포함된 능력을 구안시키는 프로그램을 구안하고 효과를 검증하는 노력이다(곽윤정, 2005; 김연자·정종진, 2005; 주동범, 2011). 세 번째 방향은 감성교육을 교과 속에서 적용한 연구이다(김명희, 2002).

이와 같이 감성지능과 관련된 선행연구를 통하여 학자들이 밝힌 내용은 감성은 변화가 불가능한 개인의 심리적인 특성이 아니라 하나의 능력으로서, 교육이나 훈련을 통해 개발될 수 있는 능력이라는 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토리텔링을 감성(정서)교육에 구체적으로 적용한 연구는 구체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 II. 이론적 배경

### 1. 스토리텔링의 개념과 가치

#### 가. 스토리텔링의 개념

스토리텔링이란 용어는 글자 그대로 이야기(story)+나누기(telling)의 합성어로 이루어진 것이다. 이야기 나누기(story-telling)는 이야기를 지닌 모든 서사 장르를 의미한다. 민담, 설화, 동화 등의 언어로 된 서사뿐만 아니라 영화, 텔레비전 드라마, 뮤직 비디오, 만화, 게임, 광고 등 비언어적 서사들도 포함된다. 뿐만 아니라 이제 서사는 픽션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역사에 관한 텍스트, 뉴스 스토리, 환자의 진료 기록표, 경찰의 사건기록에 이르기까지 그 영역이 확장되고 있다.

스토리텔링의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면 ‘이야기를 들려주는 활동’, ‘이야기가 담화로 변하는 과정’이다. 원래 스토리텔링은 문학 용어로서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 혹은 ‘구전을 말하는 것’으로, 사건과 사물에 대한 물리적인 속성이나 사실에 대한 보도(report)가 아닌 사물이나 인물이 가져다주는 개인적 의미로서의 이야기를 지어서(story making) 말하는 것이다. 사람과 사물의 본질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스토리가 개입되며, 이를 엮어서 전달하는 창조적인 활동이 수반되는 것이다.

미국 영어교사 위원회(National Council of Teachers of English)에서는 스토리텔링을 음성(voice)과 행위(gesture)를 통해 청자들에게 이야기를 전달하는 것이라고 정의한다. 대개 스토리텔러들은 이 단어를 이야기를 말하는 사람과 이야기를 듣고 상상력을 발휘하는 청자 간의 인터랙티브한 과정이라 말한다. 이야기(story), 청자(listener), 화자(teller)가 존재하고, 청자가 화자의 이야기에 참여하는 이벤트라고 정의하고 있다(송정란, 2006).

#### 나. 스토리텔링의 가치

스토리텔링은 우선 스토리를 통하여 경험을 나누고 공유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가치가 있다. 경험의 주체는 상이하지만 경험 속에 내재한 사건이나 의미는 충분히 공감할 수 있으며, 그 속에서 자신의 의미를 구성해나갈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스토리텔링은 일정한 교육과정의 틀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구성해 나가는 교사, 학습자마다 각자의 교육과정이 존재하는 것이다. 그래서 교사나 학습자의 경험이 들어있는 교육과정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스토리를 제공되어야 하는 데, 기존의 교과서는 설명식, 나열식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스토리텔링은 교과, 인지 영역을 중시하는 전통적인 교육과정의 한계를 극복하여 아동의 경험, 감성이 잘 반영된 스토리텔링을 활용하여 아동들이 공감하고 학습하고자 하는 동

기를 가지고 자신만의 교육과정을 구성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 스토리텔링의 가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예술적 가치로서 스토리텔링은 이야기를 만들어가면서 상상력과 창의력을 기를 수 있으며, 심미감을 맛볼 수 있다. 또한 다양한 디지털 스토리텔링 기법을 활용하여 예술적 가치를 가질 수 있다.

둘째, 교육적 가치로서 학생들이 스토리의 듣기·읽기·말하기 활동을 통하여 언어표현력이 신장될 수 있다. 또한 아름다운 감성이 키워진다.

즉 의사소통은 대화 참여자 간의 메시지 교환뿐 아니라 정서를 나누고 삶을 공유하는 과정이며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셋째, 사회적 가치로서 스토리텔링을 통하여 인물을 중심으로 표현되는 인간관계 즉 협동심을 기를 수 있다. 또한 다양한 경험을 통한 세계 인식적 기능을 함양할 수 있으며, 반응의 변화와 확산 가능성으로 윤리적 주체 형성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러한 가치를 지니는 스토리텔링은 최근에는 다양하게 발전을 보이고 있는데, 특히 IT의 발달과 접목되어 디지털과 스마트 스토리텔링까지 논의되고 있다.

#### 다. 디지털 및 스마트 스토리텔링의 가치

최근에는 스토리텔링을 넘어서 디지털 스토리텔링까지 논의가 확대되고 있다. 디지털 스토리텔링은 한마디로 정의하기 어려우나, 광의의 디지털 스토리텔링은 컴퓨터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서사 행위, 즉 멀티미디어 서사 창조들을 말한다.

하루가 다르게 업그레이드되는 최첨단 기기의 출현과 함께 교육 현장에서도 이에 걸 맞는 정보 매체 활용이 필요하다. 디지털스토리텔링은 나아가 스마트 스토리텔링시대로 다가가고 있다. 학생들은 텍스트 중심의 스토리텔링 보다는 시각적으로 속도와 변화가 느껴지는 디지털과 접근성이 용이한 스마트 스토리텔링에 더 흥미를 가지고

반응하고 있다. 이에 디지털 및 스마트 스토리텔링<sup>1)</sup>을 효과적으로 이용할 가치가 충분하다고 본다.

## 2. 감성지능의 개념 및 구성 요소

감성(정서)지능(emotional intelligence)<sup>2)</sup>이란 자신과 타인의 정서를 모니터링하고 정서들을 구별하며, 한 사람의 사고와 행위를 이끌어 내기 위하여 감성을 활용하는 능력이다. 과거에는 이성 능력을 방해하는 것으로서 감성을 인식하고 연구하였으나, 감성지능 이론에서의 감성은 단순한 정서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인지능력으로 처리될 수 있는 정보이며, 이 정보 속에서 대상과 대상 간의 관계가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감성지능에서 말하는 감성은 규칙적이고 일반적이며 사회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감성지능에서 지능은 지적인 능력을 말하며, 이 능력은 정신기능의 인지적인 측면을 의미한다. 즉, 어떤 대상에 대한 학습, 기억, 추론, 판단, 응용 등의 인지적인 처리과정과 작용을 포함하는 인지영역의 효율적인 조작을 의미한다(Salovey & Mayer, 1990).

Goleman(1995)은 정서지능의 개념을 좀 더 폭넓게 정의하여 정서와 연합된 일련의 적응적인 특징들을 포함하였다. 또한 Salovey와 Mayer(1990)의 세 가지 차원의 모델을 좀 더 실용적인 개념으로 범주화하여 다섯 가지 영역으로 세분화하였으며, 이 정서지능의 다섯 가지 차원으로 자기 자각, 정서 조절, 동기화, 공감, 인간관계 능력을 주장하였다. 첫째, 자기 자각은 자신의 정서에 대한 인식 능력이다. 이것은 자신의 느낌이나 생각을 아는 것으로, Salovey와 Mayer의 정서 인식 차원과 거의 동일하다. 둘째, 정서 조절은 만족을

지연하고 충동을 조절하며, 분노와 우울 및 스트레스 등의 감정을 적절히 통제하고 표현하는 능력과 관련된다. 셋째, 자신의 마음에 동기를 유발하는 능력으로, 목표가 있을 때 그 목표에 주의를 집중할 수 있고, 목표 달성을 위해 일시적으로 자신의 만족이나 충동을 억제하고 지연시킬 수 있으며, 자신의 행동을 적절하게 동기화하여 성취할 수 있는 것이다. 넷째, 타인의 감정을 공감하는 능력은 타인의 정서 상태를 정확하게 읽고 분별하며 이해하는 능력으로, Goleman은 사회적 관계를 강조하였기 때문에 대인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데 중요한 공감 능력을 별개의 범주로 구분하였다. 다섯째 범주는 인간관계를 관리하는 능력으로서, 타인과 성숙하고 유연하게 상호작용하는 능력이며, 리더십과 대인관계 능력을 뒷받침한다(이지영, 2011).

본 연구에서는 Goleman의 감성지능 5가지 요소 이론을 활용하고자 한다. 그 5가지 요소를 자세하게 제시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자기 인식 능력은 자신이 느끼는 것이나 자기 내부에서 감정을 의식하는 것을 말한다. 자신의 감정을 다룰 수 있는 사람은 자기 스스로의 삶을 좀 더 잘 이끌어 나갈 수 있으며 자신의 본능적인 직감을 신뢰한다. 여기에는 자신감, 현실적인 자기평가, 자신의 중요성을 최소화하는 유머감각(self-deprecating sense of humor) 등의 특징을 보인다.

둘째, 감정 조절 능력은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이 걱정이나 불안, 두려움, 분노 등에 의해 방해받지 않도록 자기 감정상태의 균형을 이루는 능력을 말한다. 여기에는 신뢰성, 성실성, 모호함의 편안함 마음(comfort with ambiguity), 변화에의 개방성 등의 특징을 보인다.

셋째, 자기 동기 부여는 장애, 방해, 차질 또는 실패가 있다고 하더라도 희망적이고 낙관적일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것으로 이러한 능력은 사업에 있어서 장기목표를 추구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되는 매우 필요한 능력이다. 여기에는 에너지와

1) 본고에서 스마트 스토리텔링은 스마트 기기를 활용하여 인물, 사건, 등 서사 형식을 구현하는 것을 말한다.  
2) 학술적으로 보면 정서지능에 가까우나, 최근의 지식통합의 변화와, 학교교육 목표의 변화를 강조하기 위하여 감성지능이라는 용어를 사용함.

인내를 갖고 목표를 추구하는 성향, 강한 성취욕구, 실패에 직면하여서도 낙관주의, 조직에의 헌신 등의 특징을 보인다.

넷째, 감정이입은 타인의 입장에서 타인이 느끼는 감정을 이해하는 능력을 말하며 타인이 말해주지 않아도 타인이 느끼는 감정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다. 감정이입은 자신의 감정인식에서 출발하는데, 즉 자신의 감정을 편안한 상태로 만들어 타인의 느낌을 읽어내고 이해하는데 좀 더 쉬운 상태로 자신의 감정 상태를 조절한다. 여기에는 재능을 구축 및 계속 보유하는 전문적 지식(기술), 서로 다른 문화 간의 민감성, 클라이언트 및 고객에의 서비스 등의 특징을 보인다.

다섯째, 사회적 기술은 타인과 관계에서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며 타인의 감정에 반응하고 타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능력을 말하는 것으로 이러한 능력은 인간관계를 이해하는 데 있어, 의견의 차이를 조정하는데 있어, 그리고 갈등을 해결하는데 있어 필수적인 능력이다. 여기에는 변화 선도에 있어서의 유효성, 설득력, 팀 구축 및 리더하는 전문적 지식/기술 등의 특징을 보인다(김경수 외, 2010).

### 3. 현행 감성교육의 문제점

지금까지의 감성교육은 주지주의적인 학교교육 분위기로 인하여 많은 주목을 받지 못하였으며, 이론적으로는 그 구인에 대한 이론(異論)으로 보다 체계적인 교육이 어려웠다. 그 구체적인 문제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의 주변부로 머무르고 있다. 감성교육은 항상 학교에서 독립적으로 교육과정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학교교육활동 속에 잠재적으로 이루어왔다. 지식교육을 위주로 하고 그 나머지 시간에 보완재로서 감성교육을 이해, 실천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둘째, 감정이나 정서를 구성하는 요인에 대한 학계의 공부가 어려운 실정이다. 인간의 마음 상

태를 구성하는 요인에 대한 접근은 상당한 이론의 차이를 보인다. 이러한 이론적 난점으로 인해 구인(constructs)의 해명과 측정학적 문제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셋째, 구체적인 교육프로그램이나 교사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지금까지 감성지능에 따른 세부적인 프로그램도 운영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으로 교사들마저도 학생들의 감성(정서)에 대한 인식이나 구체적인 표현 방법, 감성(정서)에 대응하는 방법을 잘 알지 못하고 있다. 아울러 사회적으로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학교 폭력, 자살 등 심각한 청소년 문제에도 적합한 감성교육 프로그램 및 자료가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넷째, 교육의 비체계성을 들 수 있다. 이 분야의 교육은 매우 단편적이고 일회성으로 그치는 경우가 많다. 감성(정서)교육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교사가 학교에 배치되어 일회성 특강이나 이벤트성 행사 수준의 감성(정서)교육이 아니라 교육과정 속에서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학생 개개인의 감성(정서)을 기반으로 한 내러티브에 중점을 둔 교육과정 구안이 시급하다.

이러한 문제점을 감안해보면 학교교육에서 감성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이론적 실천적 접근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 4. 스토리텔링과 감성교육의 관련성

어린이의 정서는 학교 교육의 과정에서도 발달하므로 학습이나 학교 교육이 정서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정서 발달 요인은 성숙, 학습, 정서의 조건화, 모방, 동정 등을 들 수 있다. 이 가운데 정서 발달의 선천적 조건으로서의 성숙과 함께 어린이가 경험에 의하여 정서를 배운다는 데서 나온 학습의 요인이 모여 이루어지는 정서의 조건화는 정서 발달을 규정하는 학습으로서 정서의 조건 형성을 뜻한다. 그리고 모방은 어린이가 타인의 정서 반응을 모방함으로써

써 정서적 반응을 학습하게 됨을 의미하고, 동정은 동일시나 공감의 심리적 기초에 의해 정신적인 공명 현상으로서 자기의 고통을 주관적으로 느끼는 감정이다. 정서의 발달 조건은 교육적 의도와 결부될 수 있으며, 학습을 통해 정서를 발달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정서에 기쁨이나 슬픔 등의 감정뿐만 아니라 기호와 태도까지 포함된다는 점이나, 정서가 발달의 위계를 지닌다는 점, 정서 발달에 성숙이나 정서의 조건화뿐만 아니라 학습이나 모방 등의 요인이 관여한다는 점 등을 알 수 있다. 이는 정서를 스토리텔링의 장면에서 다룰 때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이다.

즉, 문학교육이 정서 함양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 문학 정서는 인지 작용이 중요한 매개체가 되고, 지각 작용과 인지 작용의 매개 양상이 드러난다. 그 속에서 스토리텔링은 감성교육의 좋은 방법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초등학교 학생들 즉, 아동들의 주요 인지적 도구가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거나기보다는 감성적이라는 사실이다(김숙희, 2007: 309). 아동들은 세계를 자신이 가장 잘 아는 것들을 통해 분명한 답을 얻기 위해 그 대상과 정서적인 관계를 맺어 우선 느낄 수 있어야 하는데, 이야기가 그러한 수단이 된다. 즉, 아동들은 이야기를 통해 지적인 안정감을 얻는다. 이야기 형태의 글은 아동들의 정신적, 인지적 틀과 부합하며 아동은 감정과 정서를 자극할 수 있다.

이야기로 교육하는 방식은 아동들이 효과적으로 자신의 의미를 구성할 수 있고, 감성을 자극할 수 있어서 오랫동안 기억하게 할 수 있도록 한다.

위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볼 때 문학교육 속에서의 스토리텔링은 정서교육에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가져다준다.

첫째, 계획적 교육 의도의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감성 지능의 요소에 따라 얼마든지 문학 작품을 선택하고, 학생들에게 제공함으로써 감성

교육의 교육적 효과를 이룰 수 있다.

둘째, 발달 의존성에 맥락에 맞게 적용할 수 있다. 유아기, 청소년기 등 성장 발달 수준에 맞게 수업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셋째, 반응의 변화와 확산 가능성이 있다. 문학교육 속에서의 스토리텔링은 학생 개개인의 수준에 맞게 스키마를 활성화시키고, 내러티브를 적용하면 다양한 문학적 반응이 이루어지고, 새로운 인성 요소로 확산 가능성이 있다.

넷째, 제시하는 다양한 스토리텔링의 소재를 통하여 감동을 받고 모방을 통하여 정서교육을 이룰 수 있다.

다섯째, 스토리텔링은 작품 중심의 구조주의 기반에서 독자가 자율적으로 이야기 구조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적 장치를 기반으로 한다. 소통에 따라 이야기 구조를 구성하게 하는 자아와 세계 중심의 이야기 구조 구성모형은 이야기 속 자아와 세계의 관계를 통해 정서 지능을 구안시키도록 한다(한명숙, 2007).

이러한 점에 착안한다면 관련 내용들은 국어과 교육과정 특히 문학교육 속에서의 스토리텔링을 통해 정서교육을 효율적으로 전개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Ⅲ. 스토리텔링을 통한 감성교육 프로그램 구안의 방향

Lauritzen과 Jaeger(1997)는 이야기의 중요성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강현석 외, 2007: 74-87) 즉, 이야기는 기억하기 쉽고 삶과 유사하게 관련시킬 수 있으며, 의미를 구성하는 수단을 제공하며, 유의미한 맥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하고, 개인차를 반영할 수 있으며, 공동체에 참여하도록 한다.

이야기는 아동의 흥미를 끌고 상상력을 자극하여 경험과 공감, 이해를 더 광범위하게 확대시킬 수 있다. 또한 이야기를 듣는 것은 인지적 기능

의 총체적인 범위를 자극할 수 있다. 게다가 아이들은 정서적으로 이야기형태에 더 잘 끌리며, 낮설고 신비스러운 이야기 일수록 아이들의 지적 활동을 촉진시킨다(Egan, 1986: 50).

이야기를 통해 의미를 전달하면 쉽게 기억할 수 있다. 또한 아동들은 친구들의 이야기로부터 많은 것을 배우고 관심을 가지며, 자신의 경험과 관련된 이야기를 통해서 연상 작용을 일으킨다.

이 장에서는 스토리텔링을 통한 감성교육 프로그램의 구안 방향을 탐구하기 위하여 국내의 기존 프로그램을 분석하고, 프로그램 구안과 관련된 몇 가지 문제를 논의하고자 한다.

### 1. 국내에서 구안된 프로그램의 분석

본 연구와 관련하여 국내에서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구안된 프로그램을 분석해 본 결과 다음과 같다.

#### 가. 스토리텔링 프로그램

지금까지 구안된 초등학교 학생 대상의 스토리텔링 프로그램은 주로 지도 모형에 중점을 둔 프로그램이 대부분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스토리텔링 지도 모형을 기본으로 하고, 스토리텔링 콘텐츠를 재구성하고, 학생들의 사고 발달과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다양하고 창의적인 스토리텔링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 나. 감성(정서)교육 프로그램

지금까지 감성(정서)교육 프로그램은 주로 유아를 대상으로 한 교육프로그램이 대부분이고,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은 소수에 불과하다.(김명희, 2002: 김연자·정종진, 2005) 또한 기존의 프로그램은 학교교육과정과의 연계성이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4학년 국어과 교육과정 속에서 감성(정서)교육을 감성지능 구성 요인에 따라 체계적으로 이루어나가는 방향을 탐색해 보고자 한다.

〈표 1〉 스토리텔링 프로그램

구안자 (연도)	프로그램명	절차	특징
한금남 (2005)	스토리텔링 활용한 화형 모형을 위한 지도 구안	계획-스토리텔링 형을 위한 레포지티브-스토리텔링에 의한 이야기 입-내용 및 다양한 활동하기-반응 공유 및 평가	스토리텔링을 통한 문학 교육
김혜연 (2006)	스토리텔링 활용한 인성 지도 방법 연구	계획하기-마음 열기 및 레포지티브-스토리텔링 실연-내용 이해 및 인성덕목 인-다양한 표현 활동-반응의 공유 및 상호 평가 -내면화 단계 적용	스토리텔링을 통한 인성 교육
강용운 (2011)	Egan의 스토리텔링 모형에 근거한 국어과 교수 모형 구안	갈등 제시하기-갈등 전개하기-갈등 고조시키기 - 갈등 해결하기 단계 적용	Egan 스토리텔링 모형 적용

다. 교과 연계 감성(정서)교육 프로그램

지금까지 교과 연계 감성(정서)교육 프로그램은 일부 교과별로 매우 단편적으로 이루어져왔다(인천광역시교육청, 2012: 부산광역시교육청, 2012).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감성지능의 구성 요인별로 체계적이고 단계적인 감성(정서)교육 프로그램 탐색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감성지능 구성 요인별 콘텐츠 구안도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

### 2. 감성 지능 구성 요소별 내용

#### 가. 자기 인식 능력(knowing one's emotion)

Golman(1995)은 자기 인식 능력 개념을 격한 감정과 경험이 대뇌피질의 신경 매커니즘의 조정에 의해 중립양식을 취하면서 ‘내가 지금 느끼는 감정이 분노인지 슬픔인지’를 정확하게 인지하는 능력으로 정의하고 있다. 자기 인식 능력이 높을 경우 감정에 빠져 노예가 되기보다는 현재 감정을 인지함으로써 감정을 객관화해 합리적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중립적 상태로 전환시킬 수 있게 된다. 높은 자기 인식 능력을 갖기 위해서는 매순간 자신의 감정 상태를 인지할 수 있어야 하며, 동시에 자신의 약점과 강점을 수용하고 자신에 대해 긍정적 사고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나. 감정 조절 능력(managing emotions)

감정 조절 능력이란 일차적인 감정을 직설적으로 표현하기보다는 자신의 기분과 감정을 제대로 파악하고 조절하여 적절하게 표현하는 능력으로서 자기 감정 인식이 선행되어야 한다. 감정을 조절하거나 관리한다는 것은 감정을 억압하거나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고 이해된 감정을 바탕으로 주어진 상황에 더욱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감정이나 마음가짐을 갖도록 하는 것으로 감정조절능력에는 어려움 혹은 좌절에 빠졌을 때 자신을 스스로 위로하거나 격렬한 불안, 우울, 조바심에 빠져들 때 이를 떨쳐내는 것 등이 해당된다.

다. 자기 동기 부여(motivating oneself)

Goleman(1995)은 성취에 대한 동기를 유발하는 요인을 인간 내부의 긍정적 감성영역에서 찾고 있다. 특히 분노나 걱정과 같은 부정적 감정보다는 긍정적 사고나 자아존중 및 희망 등 긍정적 감성이 대뇌피질의 기능을 활성화하여 과제 수행에 적극적으로 임하게 만들어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고 주장한다. 자신을 긍정적으로 동기화시키는 감성요인으로는 충동 억제, 만족 지연, 인내력, 긍정적 사고, 낙천성, 자아존중감 등을 들 수 있으며, 이러한 감성이 발현될 때 자신의 목표 달성을 위한 행동을 동기화시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게 된다.

라. 감정이입(recognizing emotions in others)

감정이입(empathy)이란 타인의 주관적 경험을 지각하는 능력을 나타내며 타인이 겪은 경험을 자기 자신 내에서 다시 경험해봄으로써 동일하거나 유사한 감정을 겪어볼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Goleman, 1995).

감정이입을 잘하는 사람은 타인이 무엇을 원하고 요구하는지 파악할 수 있는 미묘한 사회적 신호에 민감하기 때문에 고통이나 궁핍, 위협에 처해 있는 사람들에 대해 감정이입을 하는 경우 그들의 고통을 공유하고 배려하며, 도움을 아끼지 않는 '이타성'이 생기기 때문에 감정이입은 도덕적 원리의 근원이 되며, 상대방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더 잘 파악하여 대처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게 된다.

마. 사회적 기술(handling relationships)

사회적 기술이란 인간관계를 관리하는 능력을 의미하며, 넓게 보면 타인의 감정을 관리하는 기술이라고 할 수 있다. 인간관계능력인 사회적 기술을 높이기 위해서는 감정조절과 감정이입의 두 가지 감정능력이 먼저 성숙되어야 한다. 타인의 감정 관리에는 인간관계에서 가끔 실패를 겪을지라도 자신의 분노나 흥분을 가라앉힐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하고 상대방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한 후 상대방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려고 하는 애타심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김경수 외, 2010).

이상의 5가지 요소를 중심으로 스토리텔링과 관련시켜 프로그램을 구안하는 일이 중요해진다. 이 과정에서 감성지능의 5가지 요소에 대한 논의보다는 관련된 능력을 구안시키는데 관련되는 스토리텔링 적용방법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이하에서는 5가지 능력을 구안하기 위한 스토리텔링 적용방법과 내용을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구안해보고자 한다.

3. 감성지능 구성 요소별 중점 적용 대상

가. 감성지능 구성 요소별 중점 적용 대상

정서지능의 주요 기술들은 어린 시절에 걸쳐 배워야 하는 결정적 시기(critical period)가 있다. 이 기간에는 신경회로에 새겨지는 것이 많으며, 특히 정서를 다루는 두뇌는 어떤 것을 배우면 절대 없어지지 않고 각인된 상태로 남게 된다. 아

동들이 초등학교를 끝마치기 훨씬 전에 이미 편도체의 반응은 충분히 형성되기 때문에, 정서적 경험은 어른이 되어서는 변화되기가 무척 어렵다. 그렇지만 대뇌 변연계의 충동을 다스리는 전두엽체는 청년이 될 때까지 성장한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익힌 기술이나 습관을 통하여 아동들은 자신의 감정의 열기를 식히며, 부정적인 행동들을 긍정적인 것들로 바꾸는 것을 배울 수 있게 된다. 즉, 아동들이 자신의 감정을 표출하려고 하겠지만 그 감정의 지속시간과 자신의 행동을 통제할 수 있도록 학습할 수 있다. 이에 아동의 정서발달을 위한 정서교육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김영희 외, 2011).

미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에서 SEL(Social and Emotion) 프로그램이 학교에서 운영되고 있다. 특히 미국의 모든 주에서 SEL을 필수 교과과정으로 지정했고, 학생들은 수학이나 언어 과목과 마찬가지로 SEL에서 일정한 점수를 획득해야 한다. 일리아노 주에서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은 자신의 감성을 파악하고 그 감성을 어떻게 작용하게 할 것인지 인지하여 정확하게 분류하는 법을 배운다.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면 감정이입 수업을 통해 다른 사람이 느끼는 방식에 대한 비언어적 단서를 인식할 수 있게 된다. 중학교에 진학해서 자신이 받는 스트레스 원인이 무엇인지, 혹은 자신이 최고의 성과를 거두는 데 어떤 요인이 작용하는 지 분석할 수 있다. 또한 고등학교 때에는 갈등을 키우는 대신 그것을 해소하는 방식을 경청하고 말하는 능력과, 서로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상하는 능력을 배우게 된다(장석훈 역, 2010).

〈표 2〉 감성 구성 요인별 중점 적용 대상

대상	1~2학년	3~4학년	5~6학년
구성 요소	자기 인식 자기 동기부여	감정 조절 감정 이입	인간관계 (사회적 기술)

미국의 사례를 근거로 하여 학생들의 발달적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감성 구성 요인별 중점 적용 대상 학년을 제시하고자 한다.

#### 4. 스토리텔링을 통한 감성교육 프로그램 구안에서 고려할 요인

교육현장에서 감성지능을 통해 학생들이 자신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혼란스러운 감정과 충동을 통제하며, 감정이입 능력을 키우게 되면 인성적 발달뿐만 아니라 학업성취도도 높아진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장석훈 역, 2010). 하지만 스토리텔링을 통한 감성교육 프로그램이 이런 성과를 가져 오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인을 고려해야 한다.

##### (1) 개인적 경험의 내러티브

아동은 자신의 경험 속에서 정서에 관한 중요한 정보를 얻고 기능을 습득한다. 인지능력 또한 자신의 경험과 관련하여 발달된다. 어린 아동은 먼저 그들 자신의 정서를 반영하고 판단하며 다른 사람들의 감정에 관한 판단을 일반화한다. 더욱이 어린 아동들은 특정 개인의 감정을 묘사하는 데 복잡한 시나리오를 창출해 내기 위해 그들의 기본적인 정서상황의 초기 이해를 토대로 한다. 자신의 정서경험을 인식하는 능력이 저하된 아동들은 다른 사람들이 주변 환경에서 유사한 정서경험에 적응적으로 반응하는 법을 깨닫는 능력도 부족하다(문용린 외, 2010; Matthews 외, 2004).

##### (2) 또래집단

또래집단은 정서적 사회화와 성숙에 두드러진 영향을 미친다. Sawyer(1996)의 연구에 따르면 순위 형제자매가 긍정적 정서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부정적 정서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반응하는 사회화 유형을 보일 경우 동생들이 정서지식을 더 잘 표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또래와 형제자매의 사회화 영향에 초점을 맞춘 정서능력에 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3) 학교와 지역공동체에서의 정서적 환경

학교와 지역공동체에서 아동이 노출된 전반적인 정서환경은 아동의 정서능력에 영향을 미친다. 특히 정서적 환경이 부정적이라면 더욱 그렇다. 교사와 지역사회의 지도자가 종종 분노와 갈등을 표현한다면, 아동들은 이러한 다양한 상황에서의 경험들을 내면화한다(Denham & Groot, 1998).

(4) 교사

가장 중요한 정서학습은 아동과 교사의 정보적 관계에서 발생한다(Mayer & Salovey, 1997). 교사들은 두 가지, 즉 가르침과 코치를 통한 직접적 방식과 각기 다른 상황에 노출된 아동을 통제하거나 관찰학습을 통한 간접적 방식으로 아동의 정서 표현 능력과 정서 조절 능력에 영향을 미친다. 학생들과 의사소통하는 교사, 교사단체 그리고 행정가들은 아동들에게 교실 내에서 적절한 정서조절 방식의 모델 역할을 하게 된다. 또한 교사들은 곤란한 상황에 잘 대처하는 방법을 직접적으로 가르친다. 그리고 교사들은 안정적인 학습 환경을 설계하고 창출하는 역할과 동시에 아동에게 정서조절에 관하여 학습해야 한다고 일러두어야 한다(문용린 외, 2010; Matthews 외, 2004).

(5) 미디어

텔레비전 시청이나 또 다른 형태의 미디어(영화, 연극과 같은)에 노출된다는 것은 아이들에게 정서 표현, 정서조절과 관련된 관찰학습의 상당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아동을 위해 계획된 몇몇의 텔레비전 프로그램들은 아동 스스로에게 명확한 방식으로 정서교육을 할 수 있는 역할 모델을 제시한다. 디지털 스토리텔링을 통한 감성교육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5. 스토리텔링을 통한 감성교육 프로그램 구안의 방향

스토리텔링을 통한 감성교육 프로그램은 개인의 정서지능을 향상시키는 프로그램으로 정서 및 타인과의 관계로 확장된 정서를 발달시켜 건강한 성장에 도움을 주기위한 정서지능 증진 프로그램의 성격을 지닌다.

이에 국어과 교육과정 속에서 스토리텔링을 통한 감성교육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은 방향을 설정하여 구안해야 한다.

첫째, 문학 텍스트를 통해서 개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감정을 인식하고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갖도록 한다.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방법의 스토리텔링이 제시되어야 하며, 감정의 종류나 인식에 대한 화자의 적절한 안내가 필요하다. 특히 이 과정에서는 자신의 감정의 원인을 잘 이해할 수 있고 감정과 행동 간의 차이를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 문학 반응을 통한 자신의 감정표현을 적절하게 처리하고 변화시킬 수 있는 감정조절 능력을 기르도록 다양한 체험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이 과정을 통해 좌절감을 극복하고 분노를 처리하는 능력이 향상되고, 공격적이거나 자기 파괴적인 행동이 줄어들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자기 자신, 학교, 가족에 대한 긍정적인 감정이 늘어나고 스트레스를 처리하는 능력이 향상되도록 한다.

셋째, 어려움을 참아내고 자신의 성취를 위해 노력하는 자기동기화 능력을 기르도록 하기 위하여 적절한 이야기를 재구성하고 내면화하도록 구성한다. 이 과정을 통해 책임감이 높아지고, 당면 과제에 집중하는 능력과 주목하는 능력이 향상되며, 충동성이 줄고 자기 통제력이 강화되도록 한다.

넷째,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여 서로 감정을 나눌 수 있는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역할놀이 등을 통해 반응을 공유하고 상호평가 하는 기회를 갖도록 한다. 이 과정을 통해 사람의 관점을 취하는 능력이 향상되고, 감정이입과 타인의 감정에 대한 민감성이 개선되며, 타인의 말을 경청하

는 능력이 향상되도록 한다.

다섯째, 타인과의 정서적 갈등을 인식하고 갈등 해결 방안을 모색하여 건강한 대인관계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는 갈등을 제시하고 전개하고, 고조시키고 해결하는 과정을 경험함으로써 문제해결능력이 향상되도록 한다. 또한 인간관계를 분석하고 이해하는 능력이 향상되고, 갈등을 해소하고 의견 불일치를 조정하는 능력이 향상되도록 한다.

### 6. 스토리텔링을 통한 감성교육 프로그램의 구조 및 절차<sup>3)</sup>

본 연구에서는 김해연(2007)이 구안한 감성교육 프로그램의 구조를 응용하여 스토리텔링을 활용한 감성교육 프로그램 구조 및 절차를 다음과 같이 구안하고자 한다.

특히 국어과 문학교육에서 문학 텍스트를 활용하여 아동들의 문학 반응과 관련지어 글의 주제나 인물 등에 대해 다양한 반응을 이끌어내는데 적합하도록 프로그램 구조를 설정하였다.

#### 가. 요소별 교육과정 분석(교과 및 단원)

교과 및 단원의 요소별로 이야기를 통한 감성교육에 대한 국어과 교육과정을 분석한다.

#### 나. 계획하기(이야기 선정 및 연습하기)

스토리텔링을 위한 이야기를 선정하고 교사는 이야기의 구성이나 줄거리를 이해하고 연습한다.

#### 다. 마음 열기 및 래포 형성

스토리텔링을 통한 감성교육의 성공을 위해서 화자와 청자 사이의 래포 형성이 선행되도록 한다.

#### 라. 스토리텔링 실연

화자가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들려준다. 이 때

3) 김해연(2007)의 연구 중에서 감성교육 프로그램 구조 및 절차에 응용함(계획하기-마음열기 및 래포 형성-스토리텔링 실연-내용이해 및 인성덕목 확인-다양한 표현활동-반응의 공유 및 상호평가-내면화)

학생들은 이야기 세계에 몰입하도록 다양한 방법을 구안한다.

#### 마. 내용 이해 및 반응 형성

학생들의 참여가 본격화되며, 이야기를 들은 후 자신의 반응을 형성하도록 한다.

#### 바. 다양한 표현활동

학생 개인별 느낌을 발표한 후 다양한 활동을 통해 자신이 형성한 반응을 표현한다.

#### 사. 반응의 공유(평가)

학생들은 개인별 혹은 모둠별 진행된 표현활동에 대한 결과물을 공유하고 정리한다.

#### 자. 내면화

스토리텔링 후 찾아낸 감성교육에 관련된 내용을 다시 한 번 되새긴다. 이 단계에서는 이야기 속에 담겨진 감성교육과 관련하여 내면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준다.

### 7. 감성지능별 스토리텔링 프로그램

본 프로그램은 연구자가 초등학교 4학년 국어과 교육과정을 재구성하여 감성지능별 구성요소에 따른 목표를 설정하고 스토리텔링 방법을 적용하였으며 내용은 <표 3> 과 같다. 이를 통해 감성교육 프로그램 구안의 방향에 구체적인 예시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표 3> 감성지능별 프로그램

감성지능 구성요소	스토리텔링 방법 및 내용(예시)
자기 인식 능력	(단원)1. 생생한 느낌 그대로(읽기 18~26쪽) (목표)개인으로 하여금 자기의 감정을 인식하고 자유롭게 표현하는 능력을 갖도록 한다. ◇ 내가 지금 느끼는 감정이 분노인지 슬픔인지 정확하게 인지하도록 텍스트를 읽거나 동영상 을 보고 읽고 이야기 나누기 - 현재 정서 스티커로 표현하기 - 등장인물이 되어 감정과 기분을 이해하기 -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고 표현하기 - 갈등상황에서 감정 이해하기

<p><b>감정 조절 능력 (중점 적용)</b></p>	<p>(단원)3. 이 생각 저 생각(듣·말·쓰 44-47쪽) (목표)자신의 감정표현을 적절하게 처리하고 변화시킬 수 있는 감정조절 능력을 기른다.</p> <p>◇ 예화 자료를 보고, 감정을 억압하거나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고 이해된 감정을 바탕으로 주어진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감정이나 마음을 가지도록 하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등장인물에 대한 역할 놀이하기 (어려움 혹은 좌절에 빠졌을 때 자신을 위로해 보기)</li> <li>- 결렬한 불안, 우울, 조바심에 들 때 행동해보기</li> <li>- 예화를 보고 화가 나는 상황을 어떻게 다루는지 학습하기 (화난 상황에서 감정 조절하기)</li> </ul>
<p><b>자기 동기 부여</b></p>	<p>(단원)6. 의견을 나누어요(읽기 115~118쪽) (목표)어려움을 참아내고 자신의 성취를 위해 노력하는 자기동기화 능력을 갖는다.</p> <p>◇ 이소연 박사의 성공 스토리를 보고, 자신을 긍정적으로 동기화시키는 감성요인으로 충동 억제, 만족 지연, 인내력, 긍정적 사고, 낙천성, 자아존중감등이 있음을 인식하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신의 꿈과 성격 등에 대해 친구들과 이야기 나누기</li> <li>- 자신의 성격에 대해 연꽃기법으로 표현해 보기</li> </ul>
<p><b>감정 이입 (중점 적용)</b></p>	<p>(단원)8. 같은 말이라도(듣·말·쓰 139~147쪽) (목표)타인의 감정을 이해하여 서로 감정을 나눌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p> <p>◇ 윤재균 감독의 성공 스토리를 보고, 감정이입을 잘하는 사람의 특성 알아보기(타인이 무엇을 원하고 요구하는 지 파악할 수 있는 미묘한 사회적 신호에 민감하기 때문에 고통이나 궁핍, 위협에 처해있는 사람들에 대한 감정이입을 하고 고통을 공유하고 도움을 줄 수 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겨울 뉴런에 대해 이야기하기</li> <li>- 마음의 공감과정 이야기하기(이해-분석-무의식적 모방)</li> <li>- 친구의 마음 읽고 이해하고 공감하기 연습</li> </ul>
<p><b>사회적 기술</b></p>	<p>(단원)8. 같은 말이라도(듣·말·쓰 139~147쪽) (단원)1. 생생한 느낌 그대로(읽기 18~26쪽) (목표)타인과의 정서적 갈등을 인식하고 갈등해결 방안을 모색하여 건강한 대인관계를 맺도록 한다.</p> <p>◇ '행복한 비밀 하나' 이야기를 읽고, 역할극으로 꾸며보고 성미와 영만의 감정조절과 갈등 해결과정을 알아보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신의 분노나 흥분을 가라앉히고 상대방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파악할 수 상대방을 충족시키는 노력이 필요함을 알아가기</li> <li>- 타인의 기분을 바꿀 수 있는 전략 알아보기</li> <li>- 화난 친구의 기분을 바꾸기 위해 재미있는 이야기를 만들어서 전달하기</li> </ul>

## IV. 결론 및 제언

### 1. 결론

본 연구는 초등학교 아동의 감성지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구안하기 위한 문헌연구 중심의 기초연구의 성격을 지닌다. 이러한 기초연구를 통해 스토리텔링과 감성지능의 특징은 무엇인지 알아보았다. 또한 스토리텔링을 통한 감성교육 프로그램 구안에서 고려할 요인들은 무엇이고, 스토리텔링을 통한 감성교육 프로그램의 방향은 어떻게 설정되어야 하는지 탐색하였다.

본 연구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프로그램 구안의 기저 지식으로서 스토리텔링과 감성지능은 상호 관련성이 높다. 이야기를 통한 의미 구성과 경험의 유의미성은 감성지능의 중요한 토대가 된다. 왜냐하면 감성은 이야기를 통한 경험의 의미성과 관련성이 높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사고와 행위에 관련된 감성은 인간의 스토리텔링, 즉 내러티브의 다른 측면이기도 하다. Goleman의 이론적 모델을 근거로 하여 스토리텔링을 통한 감성교육 프로그램 운영은 자신의 감정을 인식하는 능력,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는 능력, 자신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능력, 감정 이입 및 타인의 감정을 인식하는 능력, 사회적 기술 및 대인관계 능력을 증진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스토리텔링을 통한 감성교육 프로그램 구안에서 고려할 요인은 개인적 경험, 즉 내러티브, 또래 집단, 학교와 지역공동체의 정서적 환경, 교사, 미디어 등이다.

셋째, 국어과 교육과정 속에서 스토리텔링을 통한 감성교육 프로그램 구안의 방향은 학생 발달 단계에 적합한 중점 적용 요소를 선정해야 한다. 이어서 Goleman의 감성지능별 다섯 가지 요소에 따라 목표 또는 성취기준을 정하고 문학교육을 중심으로 한 다양하고 구체적인 활동을 전개해야 한다. 이때 교육과정 분석, 계획하기, 마

음 열기 및 래포 형성, 스토리텔링 실연, 내용 이해 및 반응 형성, 다양한 표현활동, 반응의 공유, 내면화의 구조와 절차를 거치면 효율적인 감성교육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 2. 제언

정서가 인간의 발달에서 중요한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정서는 그 난해함으로 인하여 일반인들의 관심을 끌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서에 대한 여러 다양한 연구결과와 관점들 간에 통합을 위한 노력도 부족하였다. 이에 몇 가지를 제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감성능력 구안을 위해서는 다양한 교과에서 교육과정 분석을 통해서 콘텐츠를 감성지능별 요소로 분류하고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 또한 다양한 문학작품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둘째, 교과 속의 재구성된 콘텐츠와 더불어 학생들의 내러티브를 통해 반성적 사고 확장하기 과정을 거쳐 자신의 삶에 대해 해석하고 가치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

셋째, 똑 같은 이야기라도 하는 사람의 역량에 따라 효과가 매우 다를 수 있다. 이에 화법을 내용교수지식(PCK)으로 보고 화법에 대한 다각도의 연구가 필요하다.

## 참고 문헌

강문희(2006). 아동감성촉진 프로그램의 구안을 위한 기초 연구, 서울여자대학교 사회과학논총 13, 125~146.  
 강용운(2011). Egan의 스토리텔링 모형에 근거한 국어과 교수모형 구안, 경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강한균·김회용·김두규(2011). 스토리텔링 기반의 교수-학습 과정안 구안 및 현장 적용 가능성 탐색, 수산해양교육연구 23(2), 302~318.  
 강현석 외 공역(2007). 내러티브 교육과정의 이론과 실제, 서울: 학이당.  
 강현석·김경수 역(2010), 이야기 만들기, 경기:

교육과학사, Bruner, J(2002). Making Stories: Law, Literature, Life  
 광윤정(2005). 정서지능 교육프로그램 모형 구안 연구, 열린유아교육연구 10(2), 333-363.  
 김경수 외(2010). 감성지능 구안을 통한 삶의 질 향상, 경기: 집문당.  
 김경향(2009). 스토리텔링을 활용한 초등사회과 교육과정 재구성 방안, 경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명희(2002). 초등도덕과 교육에서 감성교육의 적용, 부산교육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숙희(2007). 독서지도 프로그램이 초등학교의 자아존중감 및 공동체 의식에 미치는 효과, 영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연지·정종진(2005). 정서교육 프로그램이 초등학생의 정서지능과 사회적 능력에 미치는 효과, 교과교육총론 26(1), 99~121.  
 김영희 외(2008). 건강한 삶을 위한 EQ 높이기, 서울: 학지사.  
 김정아·김병수·이지현·이종훈(2011). 융합형 인재양성을 위한 IT기반 STEAM 교수학습 방안 연구, 수산해양교육연구 23(3), 445~460.  
 김해연(2007). 스토리텔링(Storytelling)을 활용한 인성지도 방법 연구, 광주교육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노성향 외 역(2001). 초등학생을 위한 정서지능, 서울: 양서원, Schilling, D.(1996). 50 Activities for Teaching Emotional Intelligence : Level 1, Grade 1-5 Elementary School, Network Continuum.  
 문용린 외 역(2010). 정서지능: 그 오해와 진실, 서울: 학지사, Matthews, G., Zeidner, M., Roberts, R.(2004). Emotional Intelligence: science & math  
 박성미·심미자(2011). 학습자 중심의 교수역량에 근거한 교수행동 분석, 수산해양교육연구 23(3), 374~387.  
 박재현 외 역(2005). 정서지능. 서울: 시그마프레스, Ciarrochi, J.(2006). Emotional Intelligence in Everyday Life(2nd Edition), Psychology Press.  
 박준형(2010). 크로스컬처, 서울: 바이북스.  
 박진호(2011). 책 읽어주기를 활용한 문학적 상상력 신장 방법 연구, 석사학위논문, 광주교육대학교.  
 부산광역시교육청(2012). 도덕인성교육자료. 초등학교 5,6학년용 공감 토크, 부산광역시교육청  
 서현·박미자(2010). 감성교육을 위한 동화 관련

- 개념수업모형 적용이 유아의 감성지능에 미치는 효과, 열린유아교육연구 15(5), 1~31.
- 송정란(2006). 스토리텔링의 이해와 실제, 서울: 문학아카데미.
- 안종상 외 역(2012). 감성지능(학업과 커리어에서 탁월성을 이루는 법), 서울: 시그마프레스 Nelson, D. B., Low, G. R.(2010). *Emotional Intelligence achieving academic and career excellence*, Prentice Hall.
- 우수경(2002). 유아의 정서능력과 관련변인간의 구조분석, 석사학위논문 한국교원대학교.
- 이지영 (2011). 정서 조절 코칭북, 서울: 시그마프레스.
- 인천광역시교육청(2012). 고운말을 나누어요, 인천광역시교육청.
- 인천광역시교육청(2012). 우리들 마음에 평화의 씨앗을 뿌려요, 인천광역시교육청.
- 장석훈 역(2010). 감성의 리더십, 서울: 청림. Goleman, D., McKee, A., Boyatzis, R. E.(2002). *Primal leadership realizing the power of emotional intelligence*, Harvard Business Review Press.
- 정옥분 외(2006). 정서발달과 정서지능, 서울: 학지사.
- 정희정(2008). 기업교육에 있어서 문화예술의 활용과 감성교육(프로그램) 구안에 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단국대학교.
- 주동범(2011). 초등학생의 자기통제력, 자기효능감, 학교생활적응의 관계, 수산해양교육연구 23(2), 277-289.
- 최예정·김성룡(2005). 스토리텔링과 네러티브, 서울: 글누림.
- 한금남(2005). 스토리텔링을 활용한 문학 반응 활성화 지도 방안, 석사학위논문, 서울교육대학교.
- 한명숙(2007). 이야기 문학교육론. 서울: 박이정.
- 한창호 역(2008). EQ 감성지능, 서울 : (주)웅진심크빅.
- EBS제작팀(2012). 아이의 정서지능, 서울: 지식채널.
- Egan, Kieran.(1986). *Teaching as Storytelling*,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Goleman, D.(1995), *Emotional Intelligence*, NY: Bantam Books.
- Salovey, P, & Mayer, J. D.(1990). Emotional Intelligence, *Imagination, cognition, and Personality*, 9(3), 185-211.
- Salovey, P. & Sluyter, D. J.(1997). *Emotional development and emotional intelligence: Educational implications*, NY : Basic Books.

- 
- 논문접수일 : 2012년 11월 27일
  - 심사완료일 : 1차 - 2013년 01월 03일
  - 게재확정일 : 2013년 01월 11일